

農家調查結果(1983年度)

農民의 意識構造 變化에 관한 調查研究

金 敏 男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李 成 珪

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 I. 머리말
- II. 調查概要
- III. 分析結果
- IV. 맺는 말

I. 머리말

지난 해는 政府가 豫算凍結과 함께 黑字豫算을 편성하여 糧特赤字를 줄이려는 試圖를 하였고 公務員俸給의 동결, 秋·夏穀收買價의 동결 등 公共部門에서 物價引上要因을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國際收支의 지속적인 改善對策 마련으로 國家經濟를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政府의 意志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農村에서는 벼농사가 豊作을 이루었고 當局의 複合營農支援으로 農業所得增大 機會가 마련된 반면 양파 등 一部 經濟作物과 사과, 배 등의 과일 그리고 돼지가 過剩生産이 되어 이들의 價格쪽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농민들로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이와 같은 農村社會의 變動을 농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고 農村·農業에 대한 농민들의 포괄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1978년 이후 每年「農民의 意識構造」를 조사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前年度 調查項目에다 2個 項目 즉, 「농촌에의 定着意思 또는 離農意思표명」의 경우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意識構造에 대한 분석은 農村社會의 變動을 측정하는 중요한 指標가 되고 또 農政의 1차적 受惠者는 말할 것도 없이 農民인 만큼 이들의 의식구조 파악은 農政의 입안 수행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II. 調查概要

1. 調查對象者에 관한 事項

본연구원 農政輿論調查 현지통신원으로 위촉

表 1 應答者의 道別分布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통신원수(명)	215	112	142	237	200	332	349	273	75	1,935
응답자수(명)	185	88	122	202	167	283	300	239	60	1,646
응답비율(%)	86.0	78.6	85.9	85.2	83.5	85.2	86.0	87.5	80.0	85.1
응답자 분포(%)	11.2	5.3	7.4	12.3	10.1	17.2	18.2	14.5	3.6	100.0

된 1,990명 중 「個人기록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통신원을 제외한 1,935명을 調査對象者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道別分布와 應答率은 <表1>과 같다.

그런데 조사대상자인 本研究院의 農政輿論調査 現地通信員들은 농촌에서 篤農家로 인정되는 농민과 農村指導所 및 農漁民團體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農村社會에서 여론지도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地域社會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전체 농민들이나 그 地域社會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耕作規模나 學歷과 같은 속성에서 보면 농촌사회 의 평균 수준을 다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2. 調査方法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3. 調査期間

1983년 12월 12일~1984년 1월 16일

4. 調査事項

- ① 5년 전과 비교한 농촌 생활수준의 向上 여부(1978)
- ② 농촌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점(1982)
- ③ 농촌의 생활수준이 저하된 점(1982)

- ④ 5년 후의 都農間 생활수준차의 전망(1978)
- ⑤ 영농중사 만족 여부(1978)
- ⑥ 농업 경영상의 불만(1982)
- ⑦ 農業觀 즉 농업의 국가근본 여부(1982)
- ⑧ 농업의 他產業에 비한 損害 여부(1982)
- ⑨ 농업의 장래성 여부(1982)
- ⑩ 농촌정착 意思 여부(1978)
- ⑪ 농촌에 계속 살겠다면 그 理由(1983)
- ⑫ 농촌을 떠나려고 한다면 그 理由(1983)
- ⑬ 農家經營主의 농업外 희망 직업(1979)
- ⑭ 子女에게 농업권장의사 여부(1978)
- ⑮ 자녀에 대한 농업外 권장 직업(1982)
- ⑯ 농업시책에 관한 견의사항(1979)

※ 註: ()는 調査하기 시작한 年度임

이상 16개 調査項目 중 2개項目(⑪ ⑫)이 이번 調査에 새로 들어가게 된 항목들이다. 그런데 分析과정에서 신뢰성 또는 분량 등의 문제로 일부 항목은 제외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것은 추후 검토를 거쳐 별책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5. 分析方法

회송된 조사표의 응답내용을 SPSS에 의해 電算처리 했으며 응답자의 연령, 학력, 경작규모 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應答者의 意思를 從屬變數로 하여 階層間 比較分析을 하였다.

6. 應答者의 階層別 分布

응답자의 연령층별, 학력별, 경작규모별 분포는 <表2~4>와 같다.

表 2 應答者의 年齡層別 分布

區 分	20代	30代	40代	5,60代	計
應答者數(名)	42	251	709	644	1,646
構成比(%)	2.6	15.2	43.1	39.1	100.0

表 3 應答者의 學歷別 分布

區 分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應答者數(名)	306	631	622	87	1,646
構 成 比(%)	18.6	38.3	37.8	5.3	100.0

表 4 應答者의 耕作規模別 分布

區 分	零細農	小 農	中 農	大 農	計
應答者數(名)	45	339	789	473	1,646
構 成 比(%)	2.7	20.6	47.9	28.8	100.0

※ 영세농(0.5ha 미만), 소농(0.5—1.0ha)
중농(1.0—2.0ha), 대농(2.0ha 이상)

Ⅲ. 分析結果

1. 農村生活水準의 向上 여부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5년 전과 비교한 농촌의 生活水準이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應答結果는 <表5>와 같다.

<表5>에서와 같이 「농촌의 生活水準이 5년 전에 비하여 매우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이 20.8%, 「약간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이

表 5 農村生活水準에 대한 反應

區 分	向 上			低 下			무응답	
	매우	약간	小計	매우	약간	小計		
平 均	20.8	50.7	71.5	14.3	10.8	3.2	14.0	
年 齡 層 別	20 代	36.6	51.2	87.8	12.2	0.0	0.0	0.0
	30 代	19.5	56.9	76.4	13.8	6.1	3.3	9.4
	40 代	19.2	51.4	70.6	14.4	11.5	3.4	14.9
	5,60 代	22.0	47.4	69.4	14.7	12.7	3.0	15.7
학 령 別	국 졸	22.1	48.0	70.1	16.3	9.5	4.1	13.6
	중 졸	20.0	52.0	72.0	14.4	11.0	2.4	13.4
	고 졸	20.9	51.1	72.0	13.5	11.2	3.4	14.6
	대 졸	21.2	47.1	68.3	16.4	11.8	3.5	15.3
직 업 別	영 세 농	35.6	40.0	75.6	17.7	6.7	0.0	6.7
	소 農	20.5	56.0	76.5	11.2	8.9	3.1	12.0
	중 農	19.4	50.6	70.0	15.7	10.7	3.3	14.0
	대 農	21.8	48.3	70.1	13.8	12.9	3.2	16.1

50.7%로 농촌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71.5%, 「저하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은 14.0%로 전체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다」가 14.3%, 「무응답」이 0.2%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應答結果는 83년 벼농사의 풍작, 지속적인 生産基盤造成사업, 複合營農 政策에 의한 農村所得 지원정책에 힘입어 農村生活 水準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秋穀收買價의 불가피한 동결과 돼지와 일부 경제작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겪은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階層別로 보면 年齡層別로 「농촌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의 비율이 20代가 8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0代로 76.4%, 40代 70.6%, 5,60代 69.4%의 순위로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젊은 층의 農村生活에 대한 긍정적인 評價는 이들의 대부분이 수익성 있는 畜産을 主所得源으로 하고 있는데다 당국의 營農後繼者에 대한 資金支援이 있고 또 농촌의 道路·交通·通信 등의 정비확충이 진전되면서 都市의 文化生活에 보다더 자주 접할 수 있다는데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耕作規模別로는 零細·小農층일수록 「농촌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比率이 높아, 小農이 76.5%, 零細農 75.6%, 大農 70.1%, 中農 70.0%이었다. 이는 經濟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향상 혜택을 零細·小農層일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받거나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學歷別로는 前年과 달리 오히려 大卒層에서 「농촌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비율이

表 6 농촌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점

구분		영농편의	소득향상	문화시설	의식주	물가안정	도로교통편	생활환경의개	생활품의공급	교육수준	공정한행태
평균		16.4	19.8	28.3	16.0	3.4	5.7	3.9	0.6	4.4	1.5
연령별	20代	12.5	9.4	40.5	21.9	0.0	6.3	3.1	0.0	6.3	0.0
	30代	12.0	16.6	34.3	20.0	3.4	4.0	3.4	1.1	5.1	0.0
	40代	18.5	18.5	26.4	14.5	3.3	6.2	5.7	0.7	4.0	2.2
	5,60代	16.4	23.6	26.7	15.4	3.7	6.0	2.2	0.2	4.5	1.5
학력별	극졸	21.0	23.6	22.6	11.8	2.2	8.6	1.1	0.5	5.4	3.2
	중졸	16.9	19.6	28.4	16.4	4.2	3.7	5.1	1.0	3.2	1.5
	고졸	14.7	18.6	30.4	16.7	3.1	6.3	3.9	0.2	5.1	1.0
	대졸	10.7	17.9	28.5	21.4	3.6	7.1	5.4	0.0	5.4	0.0
경제규모별	영세농	24.2	9.1	36.4	12.1	3.0	6.1	6.1	0.0	0.0	3.0
	소농	18.4	17.5	24.6	16.7	3.5	7.0	4.8	0.0	5.3	2.2
	중농	14.5	21.2	29.7	16.0	3.8	4.0	3.6	0.8	5.0	1.4
	대농	17.2	20.5	27.3	15.8	2.7	7.7	3.7	0.7	3.4	1.0

가장 낮았다.

2. 農村의 生活水準이 향상된 점

이 조사항목은 농촌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71.5%)을 대상으로 한 設問으로 그 내용은 「농촌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니까」이며 응답 결과는 <表6>과 같다.

<表6>에서 향상되었다는 내용은 10개로 大別되었으며 우선 이들의 構成比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4개를 순위대로 보면 「文化施設」이 前年보다 3.3% 포인트가 증가한 28.3%로 가장 많고, 다음이 「所得向上」으로 0.6%포인트가 증가한 19.8%, 「營農便宜」는 16.4%, 「衣食住」는 16.0%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所得向上과 營農便宜의 순위가 바뀐 것인데 이는 複合營農의 支援, 소入殖資金 등 각종 政策資金의 支援으로 所得增大가 이루어졌다고 느낀 농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文化施設의 경우 階層別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零細農層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각종 情報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電話, 家電製品 등으로 生活情報의 혜택을 크게 받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零細農層에서는 大農層보다 電氣 및 電子製品의 보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근 購入이 늘어나면서 生活의 便宜혜택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所得向上」의 경우 階層別로 보면 老年層일수록, 低學歷層일수록, 大農層일수록 그 긍정적 응답 比率이 높는데 이는 보리고개를 경험한 老年層에서 多收穫 新品種 보급으로 生産量이 증대되어 상당한 收入증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저학력 층에서는 農閑期 새마을사업 등으로 그리고 大農層에서는 81년 이후의 계속된 풍작과 複合營農 내지 多角營農 등으로 收入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營農便宜」를 階層別로 보면 老年層일수록, 低學歷層일수록, 零細農層일수록 그 비율이 높는데 이는 노동력이 부족한 노년층에서 기계 화영농으로 일손을 많이 덜게 되었고 자신의 상황 대처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영세농층과 技術

進歩에 관심이 낮은 저학력층에서 機械의 혜택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衣食住」에 있어서는 階層別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高學歷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肉類 소비증가 등 食生活의 향상이 큰 要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道路·交通更直가 5.7%, 意識水準 및 教育水準의 향상이 4.4%, 상수도, 부엌 및 변소개량, 마을 안길포장, 진료소의 설치 등으로 인한 生活環境 改善이 3.9%, 物價安定 3.4%, 公正한 行政施策 1.5%, 生活必需品 購入의 용이 0.6%로 나타났다.

3. 農村의 生活水準이 低下된 점

이는 농촌의 生活水準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14.0%)을 대상으로 한 設問으로 그 내용은 「농촌의 生活水準이 저하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이며 이의 응답결과는 <表7>과 같다.

表 7 농촌의 생활수준이 저하된 점

구분		소저	특하	부중	재가	농산물가격	물경락상	농자재	인력부족
평균		13.1	25.8	52.2	3.3	5.6			
연령층별	20代	0.0	0.0	0.0	0.0	0.0			
	30代	15.0	32.0	43.0	10.0	5.0			
	40代	13.3	24.5	55.1	2.0	5.1			
	5, 60代	12.6	26.3	51.6	3.2	6.3			
학력별	국졸	22.8	28.6	37.1	2.9	8.6			
	중졸	8.9	22.7	57.0	5.1	6.3			
	고졸	13.8	26.5	54.0	2.3	3.4			
	대졸	8.3	33.3	53.1	0.0	8.3			
경작규모별	영세농	0.0	0.0	100.0	0.0	0.0			
	소농	10.8	18.9	67.6	2.7	0.0			
	중농	16.3	27.9	44.2	2.9	8.7			
	대농	10.1	27.5	53.8	4.3	4.3			

<表7>에서 저하된 내용은 5개로 大別되었으며 이들의 構成比를 순위대로 보면 「農產物 價格下落」이 52.2%로 가장 많고 다음이 「負債增加」로 25.8%, 「所得低下」는 13.1%, 「人力不足」은 5.6%, 「營農資材 價格上昇」은 3.3%이다.

農產物 價格下落이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農產物價格이 불안정하고 다른 物價의 上昇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下落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負債增加는 教育費, 의료비, 文化生活費 등 전반적인 生活向上에 따른 消費支出의 상대적 增大 때문이라고 하였다.

所得低下의 경우는 오히려 前年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밖에 離農으로 인한 人力不足으로 勞賃이 상승하였다가 前年보다 다소 증가한 반면 物價安定시책으로 肥料·農藥 등 營農資材 價格이安定되어 「營農資材 價格上昇」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表7>에서 「농촌생활수준 저하」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 별로는 20代에서 한 명의 응답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代에서 農村生活를 상당히 肯定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耕作規模別로 보면 前年과 마찬가지로 零細農層에서 「農產物價格 하락」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都農間 生活水準差의 展望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5년 후에 農村과 都市 중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로 이의 응답결과는 <표8>과 같다.

<表8>에서 보면 「都市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4.8%, 「都市가 다소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

表 8 都市間 생활수준차의 전망 단위 : %

구 분	도시 우 위			동 일	농 촌 우 위	무응답	
	심한	약간	소계				
평 균	24.8	47.3	72.1	20.2	3.5	4.2	
연령층별	20代	9.8	39.0	48.8	41.4	9.8	0.0
	30代	23.3	49.4	72.7	22.1	2.4	2.8
	40代	26.1	49.4	75.5	17.4	2.3	4.8
	5,60代	24.9	44.6	69.5	21.2	4.9	4.4
학 력 별	국 졸	24.3	47.3	71.6	21.7	3.7	3.0
	중 졸	24.0	47.1	71.1	21.7	2.7	4.5
	고 졸	25.0	47.2	72.2	18.8	4.5	4.5
	대 졸	30.2	48.8	79.0	15.1	1.2	4.7
경작규모별	영세농	24.4	40.0	64.4	24.5	4.4	6.7
	소농	19.7	51.0	70.7	21.2	4.5	3.6
	중농	25.3	46.8	72.1	20.5	3.3	4.1
	대농	27.7	46.2	73.9	18.4	3.0	4.7

람이 47.3%로 都市우위를 전망한 사람은 전체의 72.1%, 「農村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 農村優位를 전망한 사람은 전체의 3.5%로서 前年度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都市와 農村이 비슷해질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20.2%,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2%로 되어 있다.

〈表8〉에서 都市優位를 인정하는 견해는 高學歷層, 大農層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前年과 비슷한 결과로서 농촌의 上位階層으로 갈수록 都市와 비교한 농촌의 生活水準 향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층 별로 볼 때는 20代에서 都市優位를 상대적으로 덜 인정하고 있어 이들은 역시 앞서 설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생활에 肯定的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5. 營農從事 滿足 여부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농사 짓는데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로서 이의 응답결과는 〈表9〉와

表 9 營農종사 만족 여부 단위 : %

구 분	만 족			그저 그렇다	불 만			무응답	
	매우	대체로	소계		약간	매우	소계		
평 균	3.2	21.5	24.7	31.5	34.3	9.3	43.6	0.2	
연령층별	20代	9.8	46.3	56.1	29.3	14.6	0.0	14.6	0.0
	30代	2.0	25.1	27.1	30.4	32.4	10.1	42.5	0.0
	40代	2.8	19.5	22.3	30.0	37.7	9.9	47.6	0.1
	5,60代	3.6	20.7	24.3	34.1	32.5	8.8	41.3	0.3
학 력 별	국 졸	3.0	19.3	22.3	38.1	31.0	8.3	39.3	0.3
	중 졸	3.0	22.3	25.3	32.4	35.1	7.2	42.3	0.0
	고 졸	3.7	21.8	25.5	28.1	35.8	10.4	46.2	0.2
	대 졸	1.2	21.2	22.4	27.0	29.4	20.0	49.4	1.2
경작규모별	영세농	4.4	22.2	26.6	37.9	31.1	4.4	35.5	0.0
	소농	3.9	20.5	24.4	37.0	32.3	6.3	38.6	0.0
	중농	3.1	20.0	23.1	32.7	34.7	9.1	43.8	0.4
	대농	2.8	24.5	27.3	25.1	35.4	12.2	47.6	0.0

같다.

이 표에서 보면 前年에 비해 「매우 만족한다」가 3.2%, 「대체로 만족한다」가 21.5%로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24.7%이며, 불만 이리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43.6%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前年과 동일한 31.5%, 「무응답」은 0.2%이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前年度와 거의 비슷한 경향이다.

한편 營農從事に 대해 불만인 응답자의 비율이 만족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言語나 生活慣習으로 보아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消極的인 만족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營農從事に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應答者의 比率는 전체의 56.2%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表9〉에서 階層別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營農從事に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특히 20代에서) 高學歷층일수록, 大農層일수록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前年과 비슷한 경향이다.

6. 農業經營상의 不便 또는 不滿足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農業經營상의 不만요인은 무엇입니까」로서 여기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내의 어떤 부문에서 불편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응답결과는 <表10>과 같다.

表 10 농업경영상의 불편 또는 불만점

종 류	빈 도 수(개)	구 성 비 (%)
농산물가격이 싸다	984	29.9
농산물가격이 불안정	850	25.8
노동력부족	423	12.8
농업자재가 비싸다	279	8.5
경영규모가 작다	199	6.0
자금부족	180	5.5
노동이 힘들다	174	5.3
항상 휴일이 없다	39	1.2
무응답	164	5.0
계	3,292	100.0

<表10>에서와 같이 「農産物 價格」에 대해 비교적 민감한 反應을 보이는 것은 農産物 價格의 支持와 價格安定이 農家所得保障과 직결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 내지 보장은 가령 當局의 精確한 統計에 의한 植付面積의 地域配分・調節로 生産調整을 效率的으로 할 수 있는 政策的인 支援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농민들 스스로에 의한 投機性栽培의 止揚, 生産性向上과 生産費節減방안 마련, 제값을 받기 위한 作付體系와 出荷時期의 調節 등 생산농민 쪽의 노력도 크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勞動力不足」에 따른 불편도 호소하고 있는데 耕地整理 및 農機械보급 촉진 등을 통한 營農의 기계화는 계속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農業資材가 비싸다」는 견해는 前年에 비해 3.6%포인트가 감소한 8.5%로 나타났다

는데 이는 정부의 物價安定시책이 크게 주효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밖에 「經營規模가 작다」가 6.0%, 「資金不足」이 5.5%, 「노동이 힘들다」가 5.3%, 「항상 휴일이 없다」가 1.2%, 「무응답」이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7. 農業의 國家根本 여부

농민의 農業觀을 물은 것이다.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의 응답결과는 <表11>과 같다.

表 11 농업의 國家根本 여부

구 분		국가의 根本이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국가의 根本이 아니다	무응답
평 균		65.4	25.1	8.1	1.4
연 령구분	20 代	62.5	25.0	7.5	5.0
	30 代	63.6	28.4	6.8	1.2
	40 代	63.5	25.8	9.3	1.4
	5, 60 代	68.2	23.1	7.4	1.3
학 령구분	국 중	69.7	23.0	5.3	2.0
	중 고	66.4	25.1	7.1	1.4
	대 중	62.1	26.7	9.9	1.3
	대 대	65.9	21.2	12.9	0.0
경 작구분	영 세 농	77.8	17.8	2.2	2.2
	소 농	66.5	26.3	6.0	1.2
	중 농	66.1	24.3	7.8	1.8
	대 농	62.0	26.3	10.8	0.9

<表11>에서 「國家의 根本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前年에 비해 7.8% 포인트가 감소한 65.4%로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뿌리깊은 傳統觀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經濟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比重이 점차 減少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5.1%, 「國家의 根本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1%로 나타났다.]

階層別로 보면 老年層일수록, 低學歷層일수

특, 需細農層일수록 「國家의 根本이다」라고 응답한 比率이 높게 나타나 이들 계층에서 농업에 대한 애착과 傳統指向의인 思考方式이 남달리 큼을 알 수 있다.

8. 農業의 將來性 여부

「農業에 將來性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設問에 대한 응답으로 이의 응답결과는 <表12>와 같다.

表 12 농업의 장래성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다	별로 없다	무응답	
평균	10.9	39.0	47.6	2.5	
연령층별	20 代	24.4	51.2	19.5	4.9
	30 代	7.7	45.9	44.4	2.0
	40 代	8.6	38.2	50.9	2.3
	5, 60 代	13.9	36.4	46.8	2.9
학력별	국졸	11.5	38.9	45.5	4.1
	중졸	11.1	40.6	45.5	2.8
	고졸	11.1	39.2	47.9	1.8
	대졸	6.9	27.6	64.4	1.1
경작규모별	영세농	13.3	42.2	40.1	4.4
	소농	15.2	37.9	42.1	4.8
	중농	9.1	39.4	49.2	2.3
	대농	10.6	39.1	49.2	1.1

「장래성이 있다」는 적극적인 긍정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래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긍정의 합계가 49.9%이며 「별로 없다」는 소극적인否定은 47.6%로 나타나 農業의 將來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태도가 否定的인 태도보다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前年에 비해 다소 肯定的인 응답이 줄어 들었다.

이는 工業에다 重點을 두는 지금까지의 不均衡成長論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농민들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高所得 福祉農漁村」 건설을 農政의

至上目標로 하는 현재의 政策基調가 시간이 흐르면서 광범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농민들의 농업의 장래에 대한 肯定的인 입장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表12>에서 階層別로 보면 老年層일수록, 高學歷層일수록, 大農層일수록 農業의 장래에 대해 소극적인 否定을 보여주는 비율이 높았다.

9. 農村定着意思 여부

이에 대한 設問은 「계속 農村에서 사시겠습니까」로서 이의 응답결과는 <表13>과 같다.

表 13 농촌 정착의사 여부 단위 : %

구분	이농	농촌정착	이농후 귀농	
평균	28.4	58.3	13.3	
연령층별	20 代	25.0	57.5	17.5
	30 代	33.2	48.6	18.2
	40 代	30.0	56.1	13.9
	5, 60 代	25.1	64.4	10.5
학력별	국졸	24.6	60.8	14.6
	중졸	28.8	58.3	12.9
	고졸	30.1	56.6	13.3
	대졸	27.9	60.5	11.6
경작규모별	영세농	25.0	52.3	22.7
	소농	26.2	58.9	14.9
	중농	28.7	57.7	13.6
	대농	30.0	59.1	10.9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農村定着」 의사가 전체의 58.3%로 前年보다 0.1%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다음이 農村을 떠나 都市에서 살고 싶다는 「離農」 의시로 0.2% 포인트가 증가한 28.4%, 都市에 가서 살다 돈을 벌면 다시 농촌에 와서 살겠다는 「離農후 歸農」 의사가 0.8% 포인트가 증가한 13.3%로 나타났다. 이는 前年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일은 「離農의사」의 경우 이농은 여러 가지 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는 소극적인 의사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잠정적 가능성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農村에 계속 살겠다는 理由

「農村定着」에 응답한 사람(58.3%)을 대상으로 한 設問으로 그 내용은 「농촌에 계속 사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로서 이의 응답결과는 <表14>와 같다.

表 14 農촌에 계속 살겠다는 이유

종 류	구성비 (%)
농촌생활이 좋아서	26.1
다른 기술없고 농사밖에 몰라	19.7
연령이 많아 직업변동이 곤란	15.6
고향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10.5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어서	10.3
도시에서 살 능력이 없어서	7.3
농촌에 기반이 있어서	3.8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3.7
심적 안정과 건강을 위해	1.6
여생을 보내기 위해	1.4

「農村生活이 좋아서」가 26.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자유로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조용하고 쾌적하며 공기가 좋아서, 크게 성공은 못하더라도 휴과 함께 성실하게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農業이 天職이어서, 農閑期가 있기 때문에 등이 主內容을 이루었다.

다음에 「다른 기술 없고 농사밖에 몰라」로 19.7%, 「연령이 많아 職業變動이 곤란하므로」 15.6%, 옛조상의 얼을 받들기 위하여, 先山을 지키기 위하여, 宗孫이므로 등이 주내용을 이룬 「고향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가 10.5%, 多角營農 내지 複合營農, 機械化 등으로 都農間 격차가 해소되고 있고, 앞으로 노력만 하면 農業所得이 都市所得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를 理由로 내세운 「農村에서도 잘 살 수 있어서」가 10.3%, 都市에서 살 능력과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都市에서 살 능력이 없어서」가 7.3%, 「農村에 基盤이 있어서」 3.8%,

「農村을 發展시키기 위해」가 3.7%, 「心的 安定과 건강을 위해」 1.6%, 「여생을 보내기 위해」 1.4%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農村에서 살겠다는 農民들이 상당히 밝고 肯定的인 角度로 농촌을 보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삶의 방식대로 농촌에 定着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經營主의 農業外 희망職業

이에 대한 設問은 가령 불가피하게 離農을 해야 하거나 農外所得을 위한 就業의 경우와 관련한 것으로 「귀하가 農業 이외의 다른 직업을 원한다면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이다. 이의 응답 결과는 <表15>와 같다.

表 15 농업의 희망 직업 (경영주)

종 류	1982년		1983년	
	빈도수 (개)	구성비 (%)	빈도수 (개)	구성비 (%)
상업및서비스業	659	44.5	638	38.8
축 산, 원 예	199	13.4	125	7.6
공 무 원	112	7.6	89	5.4
기 술 및 기 능	63	4.3	63	3.8
사 무 직	48	3.2	51	3.1
사 업 가	17	1.1	40	2.4
교 육 자	16	1.1	15	0.9
수 의 사, 한의사	7	0.5	11	0.7
의 사, 한의사	5	0.3	4	0.2
중 교 인	3	0.2	2	0.1
작 가	1	0.1	2	0.1
정 치 가	3	0.2	1	0.1
무 응 답	347	23.4	605	36.8
계	1,480	100.0	1,646	100.0

前年과 거의 비슷한 順位로 나타났으며 農業 이외의 직업으로 가장 選好度가 높은 것은 商業 및 서비스業이며 이의 전체에 대한 구성비가 38.8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한 技術이나 學歷이 요구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畜産 및 園藝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을 잘만 하면 收益性이 많은데다 農村에서 목돈마련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들은 실제로 농민들이 즉시 취업이 가능한 것들이다.

그밖에 公務員과 같은 비교적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5.4%, 技術 및 技能 3.8%, 事務職 3.1%로 이들이 選好度에 있어 中位圈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 직업들은 대부분 농민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취업이 어려운 직업들이다.

나머지 직업들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났다. 무응답은 前年에 비해 무려 13.4%포인트나 증가한 36.8%로 나타나 經營者들의 農業 이외의 職業에 대한 관심과 희망이 크게 줄어들었거나 희망하는 직업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農業施策에 관한 建議事項

과거의 農政施策에 농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현재 또는 장래의 農政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파악, 앞으로의 농정시책 입안 및 수행에 현실성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對政府 건의사항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류 정리한 것은 <表16>과 같았다.

농민들의 建議事項으로는 「農畜產物 價格保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秋夏穀 收買」, 「營農資材」, 「營農資金」, 「農村社會」, 「農畜產物輸入」, 「農畜產物 流通改善」, 「生産基盤造成」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對政府建議 빈도가 가장 큰 「農畜產物 價格保障」 문제는 農家所得의 관점에서 볼 때 「農畜產物輸入」이나 「農畜產物 流通改善」 항

表 16 농업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종 류	1982년		1983년	
	빈도수 (개)	구성비 (%)	빈도수 (개)	구성비 (%)
농畜산물가격보장	689	23.3	704	21.4
추 하 곡 수 배	276	9.1	344	10.4
영 농 자 재	316	10.7	283	8.6
영 농 자 금	160	5.4	193	5.9
농 촌 사 회	165	5.6	173	5.2
농 축 산 물 수 입	130	4.4	150	4.5
농畜산물유통개선	111	3.8	121	3.7
생 산 기 반 조 성	155	5.2	111	3.4
축 산	48	1.6	89	2.7
농 지 세 및 수 세	91	3.1	84	2.6
특	19	0.6	39	1.2
농 의 소 득 기 회 마 련	34	1.1	33	1.0
농 업 통 제	19	0.6	32	1.0
노 동 력 및 노 임	8	0.3	19	0.6
물 가 안 정	9	0.3	11	0.3
농가방송 및 농민신문	1	0.1	7	0.2
농 업 재 해 보 험	9	0.3	2	0.1
무 응 답	726	24.5	897	27.2
계	2,960	100.0	3,292	100.0

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농민들은 생산장려와 함께 適正生産을 유도하기 위한 契約栽培와 價格豫示制의 擴大, 販路개척, 農產物 共販場・集荷場 등의 확대를 포함한 流通體系의 확립 등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農業의 生産基盤과 與件 등의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不利한 편이므로 輸入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다.

「秋夏穀收買」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려운 財政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收買配定量을 좀 더 늘려주고 外上收買 등의 方法으로 되도록 一時收買를 가능케 함으로써 목돈을 쥌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營農資材」에 있어서는 肥料・農藥・農機械를 되도록 싼 값으로 普及하고 農機械 구입자금을 長期・低利融資로 지원, 機械化營農을 조속히 실현해줄 것을 바랐으며 新品種・優良種子供給

의 圓滑化, 農藥 종류의 간소화 등이 요망되었다.

「營農資金」은 규모를 좀더 늘려 早期・適期放出하고 長期資金의 비율을 높여주는 한편 年末에 轉중된 回收時期를 조절하여 추곡의 洪水出荷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農村社會」에서는 의료보험의 실시, 營農 後繼者 養成, 地域실정에 맞는 複合營農의 계속적인 支援・擴大, 不在地主의 방지대책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生産基盤造成」은 耕地整理와 農路開設을 통한 農業機械化, 개간, 격토, 농업용수의 개발이 한해상습지와 오지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畜産장려, 農地稅와 水稅 및 農地等級의 不合理 是正, 地域特性에 맞는 特用作物の 作付體系 확립과 栽培面積의 調節로 過剩生産防止, 農閑期の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農村工場건설 등 農外所得 기회의 마련, 物價安定의 지속, 보다더 정확하고 광범한 農村實情의 報道와 農漁民教育 프로의 增大, 農業災害保險의 실시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農民意識構造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요약컨대 前年에 비하여 농민들이 農業 및 농촌생활을 보는 시각에 극히 미미한 變化를 보이고는 있으나 全體的인 傾向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의 基本的인 意識構造는 전통적인 思考類型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面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農產物價格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例

年에 비해 다소 민감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이 이제 商業化단계에 들어섬으로써 營農에 있어서 收支意識이 과거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아직도 農家所得에 대한 農產物比重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해 양파, 고추 등 일부 경제작물과 과일, 돼지 등의 파잉생산에 의한 價格下落 현상이 다소 영향을 미쳤겠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농사의 主體인 農民들에게 새로운 경영의식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데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제 農民들도 投機性을 止揚한 合理的인 經營을 하여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 當局에서도 生産못지 않게 되도록 정확한 통계에다 地域特性과 作物을 連繫시켜 植付面積을 地域的으로 配分, 調節하는 生産調整과 流通體系에 종래보다 더 큰 比重을 두어야 할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83년의 分析結果에서 밝혀진 내용 중 農村에 대한 「밝고도 肯定的인 측면」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들은 5년 전에 비해 農村生活水準이 向上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둘째,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라는 전통적 農業觀을 고수하고 있고, 셋째, 앞으로 農村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고, 넷째, 農業에는 將來性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都市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등 다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한편 子女에게 農業勸獎意思 여부를 묻는 設問에 자녀들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農村社會에서도

지금까지의 家父長的 權力體制에 기인하는 權威主義的 思考에서 차차 벗어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말하자면 민주적 사고구조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는 一面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階層別로 볼 때 農村生活의 「밝고 肯定的인 面」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층은 상대적으로 營農이나 생활조건이 不利할 것으로 생각되는 층이 대부분으로, 年齡層別로는 젊은 층일수록(특히 20代에서), 學歷別로는 低學歷層, 耕作規模別로는 零細小農層이 농촌생활에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農村生活의 「否定的인 面」에 응답한 比率이 높은 층은 상대적으로 營農이나 생활조건이 有利할 것으로 생각되는 층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年齡層別로는 老年層일수록, 學歷別로는 高學歷層일수록, 耕作規模別로는 大農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年齡層別로 老年層일수록 農業이 國家의 根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농민의 意識構造 調査는 본연구원이 창설된 지난 1978년 이래 6년째 계속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보다 정확한 의식구조에의 접근을 시도한다는 뜻으로 조사問項을 수정하거나 項目을 加減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을 했지만 골격에는 큰 變化가 없다.

農民意識構造는 그 자체 農村社會 또는 농촌

經濟變化의 주요한 指標이지만 동시에 變化의 주요 要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적 變化, 즉 發展의 측면에서 볼 때는 농민의식 구조는 政策手段 내지 궁극적으로는 政策目標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라 하겠다.

構造(social structure)는 본질적으로 靜態的 개념이지만 時間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구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構造는 어떤 시점의 斷面이다. 가령 올해 조사한 이 農民意識의 構造라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서 나타나게 마련인 變化를 前提로 한 것이다.

「農民의 意識構造에」대한 이러한 두 가지 認識은 「우리」의 「農村社會 및 農業經濟에 대한 長短期 政策의 研究와 立案遂行過程에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參 考 文 獻

- 金敏男, 李成珪, “農民의 意識構造 變化에 관한 調査 研究,” 「農村經濟」, 제 6권 제 1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3
- 金敏男, 崔益秀, “農民의 意識構造 變化,” 「農村經濟」, 제 5권 제 2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6
- 崔然宇, “1981년도 農政 全般에 대한 農民意識 現地 調査結果,” 「農村經濟」 제 4권 제 2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 6
- 福武直, 「農村社會 と 農民意識」, 有斐閣, 1972. 6